

➤ Advice : 3

## 학원강의 활용법

## 종합반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참석반 합격수기 [798 → 916]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법학원 침삭반을 수강하고 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초시인 12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합격 발표가 나기 전 3월 말부터 한림법학원의 암기장 강의를 현강 수강하였고, 그 직후 개강한 침삭반 종합반을 수강하였습니다. 제 재수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림법학원'이었고, 또 한 번의 시행착오 없이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선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한 학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재정비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만 하는 N시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기를 씁니다.

## 2. 성적표 인증

[12회 변호사시험: 객 96개/ 총점 798.21점]

선택형			논술형										전문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국제거래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55.00	75.00	110.00	40.12	53.94	49.34	41.95	40.97	56.22	43.97	36.66	51.47	74.19	31.92	37.46
			143.40			139.14			206.29				69.38	
총 점			798.21											

[13회 변호사시험: 객 106개/ 총점 916.97점]

선택형			논술형										전문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국제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65.00	75.00	125.00	54.49	54.63	48.52	54.50	41.86	43.17	76.69	42.25	51.93	80.66	50.78	52.49
			157.64			139.53			251.53				103.27	
총점			916.97											

초시에 비해 객관식은 (객컷 차이를 반영했을 때) 13개 올랐고, 사례 점수가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기록형은 후술하는 이유로 막판에 시간을 들이지 못한 탓인지 점수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 3. 시기별 공부 방법

#### - 3월 말 ~ 발표 직전:

- 1) 민법/민소법/상법 암기장 강의(김남훈 선생님), 형법 암기장 강의(이재상 선생님) 현장 수강
- 2) 객관식 및 기록형 스터디

작년 위 시기에 저는 불합격을 예상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과 감을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암기장 강의를 수강하고,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학원 독서실에서 로스쿨 동기들과 객관식 및 기록형 온라인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곧 발표될 결과에 대해 걱정이 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기인 만큼, 매일 오전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며 판례들을 되새기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졌고, '불합격하면 지금까지 다 까먹은 것을 새로 공부해야한다'는 불안감도 없어서, 불합격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재수를 시작했을 때 부담감이 적었습니다.

객관식 스터디는 매일 한 과목 기출문제 1회분을 시간 맞춰 각자 푸는 식으로 진행하였고, 기록형 스터디는 주 1회 한 과목 기출문제 1회분을 시간 맞춰 푸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복습은 각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4월 말 ~ 7월 초(1순환):

- 1) 각 과목 암기장 1회독 + 사례형 실전연습 & 첨삭
- 2) 기상스터디

이 시기에는 주 6일 매일 오전 사례형 시험을 보고, 바로 다음 날 채점된 답안지와 등수를 받아보게 됩니다. 매일 TOP3 점수를 받은 답안이 공유되는데, 저는 그 답안들을 보며 '학원에도 이렇게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 답안과 이런 점이 다르구나'를 느끼고 많이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진도별 시험을 통해 각 과목 암기장 1회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였고,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이후의 수험생활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삭은 주 1-2회 진행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제 답안의 부족한 점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이 들었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 덕분에 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스터디는 학원 독서실 내 게시판을 통해 구하였고, 이 시기부터는 기상스터디 외 다른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 - 7월 초 ~ 8월 초(2순환):

- 1) 각 과목 최신판례 강의 수강
- 2) 기록형 실전연습 & 첨삭
- 3) 각 과목 객관식 기출 1회독(전개년)
- 4) 기상스터디

2순환 때에는 사례형 시험이 없고 각 과목 최신판례 강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김남훈 선생님의 기록형 및 민사집행법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 강의도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민사법 1회독을 마친 시점에서 위 강의를 들으니 민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최신판례 강의를 듣기만 하고 복습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이때 복습을 해 둘걸' 하고 많이 후회하였습니다.

기록형 모의고사의 경우 저는 김남훈 선생님(민기록), 이재철 선생님(형기록), 유시완 선생님(공기록) 수업을 수강하였고, 모의고사의 수험적합성이나 강평 등 모든 것에 만족하며 공부하였습니다. 기록형은 혼자서 실전연습하기 특히 힘든 과목인 만큼, 다른 수강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맞춰놓고 시험을 보고 바로 강평을 들을 수 있으며, 등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위 최신판례 및 기록형 공부를 하면서 8월 모의고사 직전에 모든 과목의 객관식 기출문제 1회독을 마쳤습니다.

전술한 기상스터디는 이 시기에도 계속 하였습니다.

### - 8월 말 ~ 10월 중순(3순환):

- 1) 각 과목 암기장 2회독 + 사례형 실전연습 & 첨삭
- 2) 기록형 실전연습 & 첨삭
- 3) 각 과목 객관식 기출 2회독(전개년)
- 4) 기상스터디

이 시기에는 1순환 과정에서처럼 주5일 매일 진도별 사례형 시험을 치르고 첨삭을 받았습니다. 주말 하루에는 기록형 실전연습과 강평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첨삭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과목 암기장의 두 번째 회독을 마쳤고, 10월 모의고사 직전 객관식 기출 역시 두 번째 회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며 무리를 한 탓인지 이 시기에 몸이 안 좋아져서 한 달 동안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상 기상스터디는 9월 말까지만 하였습니다.

### - 10월 말 ~ 12월 중순(4순환):

- 1) 각 과목 최신판례 공부 시작, 2회독
- 2) 각 과목 암기장 3회독
- 3) 당해 연도 6/8/10월 모의고사 객관식 1회독
- 4) 국제법 공부 시작
  - 당해 연도 6/8/10월 모의고사 3회독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최근 6개년 3회독
  - 위 모든 문제 시간 맞춰 실전연습

이때 저는 10월 모의고사 전후 한 달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마음이 많이 급했고, 아직 최신판례 강의를 수강만 했지 복습을 한 적이 없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모의고사 객관식 기출문제를 복습은커녕 선지 정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제법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저는 초시때 국제거래법을 선택했는데, 저와 잘 맞지 않는 과목이라는 판단이 들어 재시 때 국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없어서 '이러다 또 불합격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원에서 '모든 과목 암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2회독' 마쳤다는 사실과 '이제 사례형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제 마음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암기장 회독 속도가 빨라진 만큼, 남은 시기 동안 변모 객관식 기출도 국제법도 최신판례도 모두 다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각 과목 최신판례를 매우 빠른 속도로 2회독 하였고, 동시에 각 과목 암기장 세 번째 회독과 당해 연도 모의고사 객관식 선지 정리와 복습, 국제법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사실 4순환 때에는 학원에서 사례형 전범위 실전연습 및 첨삭, 기록형 실전연습 및 첨삭이 이루어 집니다. 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9월-10월의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그동안 못한 공부를 매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음으로 학원 스케줄에서 벗어나 저만의 4순환을 꾸렸습니다. 이때 기록형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시험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느껴서, 특히 사정이 없다면 학원 스케줄에 따른 4순환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 12월 말 ~ 변호사시험:

- 1) 각 과목 객관식 기출 3회독(전개년)
- 2) 각 과목 최신판례 3회독
- 3) 수면 패턴 맞추기

과목별 객관식 기출의 세 번째 회독을 하였고, 최신판례 역시 세 번째 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수면 패턴을 변호사시험 스케줄에 맞게 하여 생활했습니다.

## 4. 한림법학원 첨삭반의 장점

- 1)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 2) 충분한 사례/기록형 실전연습 기회
- 3) '합격하는 사례형 답안 스킬'을 체화시켜주는 첨삭
- 4) 매일 받아보는 답안지 채점 및 등수표의 높은 퀄리티
- 5) 시설 좋은 열람실
- 6) 최상의 면학 분위기
- 7) 수강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직원분들
- 8) 한림법학원의 위치적 장점

역삼동에 위치하여 동네가 쾌적하고, 헬스장과 밥집, 문구점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많아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 9) 법학 내용은 물론 답안 구성 논리까지 길러주는 강의

저는 김남훈 선생님, 이재상 선생님, 정주형 선생님, 이재철 선생님, 선동주 선생님, 서창교 선생님, 유시완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 '실력을 길러주는' 강의와 답안 관련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5. 마치며

작년 이맘때쯤 선배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합격한다’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수기를 읽으며 제 재수생활의 방향을 잡았고, 학원을 다니는 동안 매우 만족하였기에 그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는 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한림법학원은 ‘보석’같은 학원입니다. 타학원에 비해 아직 소문은 덜 나 있지만, 최고의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학원이 한림법학원이 아닐까 합니다. ㅎㅎ

재수생활을 하는 8개월 동안 저는 쾌적한 환경에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치열하게 매일 다음 날 치를 시험 공부를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저처럼 몸이 아파 공부를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슬픈 개인사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모든 수험생에게는 저마다의 힘든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1년이 소중한 우리에게는 기회 제한이 있는 만큼,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냅시다.

지금과 같이 힘든 때일수록 머리를 비우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 학원 시스템으로 들어가 ‘당장 내일의 시험’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 많기에 다소 부족한 수기임에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월을 후회 없게 보내셔서, 곧 행복 꽃이 만개한 4월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